



4면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치료 '길 열리다'

# 전주매일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윤 2월 16일) 제32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6일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최경식 남원시장(사진 왼쪽)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같은 날, 김관영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전북도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



##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나' 군산시의원 우종삼 당선 (더불어민주당)

4·5재선거 개표 결과... 득표율 각각 39.07% · 37.77%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전주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종삼 후보도 나선거구 군산시의원에 당선됐다. 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 후보가 총 투표수 4만4,728표 중 1만7,382표를 얻어 39.07%로 당선됐다. 경쟁후보인 임정엽(무소속) 후보는 1만4,288표(32.11%), 안해욱(무소속) 후보는 4,515표(10.14%), 김호서(무소속) 후보는 4,071표(9.15%), 김경민(국민의힘) 후보는 3,561표(8%), 김광중(무소속) 후보는 689표(1.50%)를 얻었다.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 당선인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우종삼 당선인

이날 함께 치러진,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재선거에서 우종삼 후보가 총 투표수 6,230표 중 2,340표를 얻어 득표율 37.77%로 당선됐다. 경쟁후보인 윤요섭(무소속) 후보는 1,957표(31.59%), 김용권(무소속) 후보는 1,287표(20.77%), 오지성(국민의힘) 후보는 610표(9.84%)를 얻었다. 한편, 도내에서 치러진 재선거와 관

련 전주를 투표소 49곳, 군산 나선거구 투표소 16곳에서 투표가 진행됐으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며 마감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 투표율은 저녁 9시 30분 기준 26.8%로 집계됐다. 전주을 유권자는 16만6,922명이다. 전주을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삼직 전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책임의식으로 무공천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재, 평일에 치러지는 재선거인 데다 늦은 날씨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산시 나선거구의 투표율은 저녁 9시 30분 기준 16.4%로 집계됐다. 군산시 나선거구 유권자는 3만8,072명이다. 이번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삼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군산시의회 나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는 무투표 당선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후보이탈로 인해 치러졌다. /특별취재반

## 국회서 전북 현안 해결 '구슬땀'

김관영 지사, 이용호 의원에 교육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 선정 지원 요청

안규백 의원과 전북 방위산업 육성 계획 공유... 전북 강점·미래 가능성 적극 강조

김관영 도지사는 5일, 7명의 국회의원을 연이어 면담하는 등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펼쳤다. 김 지사는 반도체를 비롯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도정 역점 현안의 원활한 후속 추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들이는 실효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5일 국회에서 김종민·노

웅래·박광은·안규백·이용호·정성호·홍익표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주요 국가 공모사업의 경우 현재 각 부처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는 중으로, 현 단계가 향후 사업 선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방

위산업 영역에서 전북이 중요한 국가 사업을 확보한다면 향후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용호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부의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사업에 전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국회의원을 만나 전북도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공유하고, 전북도의 강점과

미래 가능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안규백 국회의원에게 △국산 탄소섬유 적용 국방·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145억, 2024~2028년)과 △새만금 인근에서 진행 중인 방위산업 관련 동향을 공유하며 전북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위산업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김종민·노웅래·박광은·정성호·홍익표 국회의원을 만나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추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 제10회 부안 마늘축제

2023. 5.4. (Thu.) - 5.6. (Sat.)

부안군 일원 [주행사장:매창공원] 주최·주관: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

###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공모 선정

김제 서흥 농공단지 2024년까지 22억여 투자 에너지관리 플랫폼 구축

전북도가 2년 연속으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며, 전북도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산단관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공모 사업에 김제 서흥 농공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까지 총 22억3,000만원을 투자해 개별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통합시스템, 전력저여 분산전원 등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분산전원, 에너지 효율화 전력제어장치 등으로 총 7%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김제 서흥농공단지 내 연간 에너지사용량 570tce, 탄소배출량 1,188tCO2이 감소해 기업은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환경적으로는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에 참여한 농공단지 내 24개 기업에게는 연간 7,400만원의 전기·가스요금 절감과 ESG 경영, RE100 기여 등 경영환경 개선 혜택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 도,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 시행

농촌인력증가센터, 올해 38개소로 확대·운영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 기숙사 3곳 신규 건립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일손부족시 적기 대응

전북도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농번기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2020~202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농촌인력증가센터 확대 운영과 공공형계절근로자 운영 지원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2022년도에는 27만15,000명의 인력을 지원(2021년 대비 52.5% 증가)하고 농촌 일손 부족 위기 극복에 총력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3년도에도 농촌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공공 부문 인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인력증가센터를 활용한 국내인력 공급확대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2022년 대비 3만4,000명이 증가한 30만19,000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인력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노지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증가센터를 지난해 32개소에서 올해 38개소(32억)로 확대 운영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해, 농작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지원봉사단체, 대학생,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시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시 유유인

4월 7일 신문의 날 관계로  
4월 9일까지 신문 쉽니다.